

통구스 민족명의 어원 및 자명(自名) 분석: 에벤키족과 에벤투족을 중심으로

엄순천
(성공회대학교)

I. 들어가는 말

1931년 시베리아 소수민족에 대한 명칭이 공식적으로 확정되기 전까지 통구스는 주로 에벤키와 에벤투족을 지칭했다. 하지만 오늘날 통구스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기 보다는 다양한 민족의 공통성을 의미하는데 사용된다. 첫째, 기원과 문화에서 서로 친연관계에 있는 에벤키와 에벤투족을 가리킨다. 둘째, 에벤키와 에벤투족을 포함하여 프리아무리예와 사할린 섬의 통구스제어 사용민족, 여진족과 만주족 등 통구스제어권의 모든 민족을 가리킨다. 셋째, 19-20세기 인류학, 민속학 등의 문헌에서 통구스는 현대 에벤키족과 등가 개념으로 사용된다.

통구스를 통구스제어권 민족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수용할 경우 그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 연구자에 따라 통구스의 범위는 다소 차이가 나는데 비추린¹⁾은 고대 한국인은 남통구스족에 포함시키고 에벤키, 에벤투, 만주족,

1) Бичурин, Н. 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обитавших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 2, Институт этнографии им. Миклухо-Маклая, 1950, с. 135.

말갈족, 여진족은 북통구스족에 포함시킨다. 소콜로바 & 투골루코프²⁾는 동호족의 후예인 선비족과 거란족도 통구스족에 포함시킨다. 그렇다면 통구스족은 한민족과 일정정도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바가 없다.

고고학과 생물학 분야에서는 에벤키족을 비롯한 통구스제어권의 모든 민족을 대륙 몽골로이트 북-만주지류의 북부그룹으로 분류한다.³⁾ 이들은 예니세이강에서 오즈크해 연안까지, 레도비해부터 몽골의 북부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퍼져있다. 그런데 통구스족은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중국문헌의 기록처럼 중국 고대민족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먼 과거 시베리아의 타이가 지역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또 통구스의 어원과 의미는 무엇일까? 통구스족은 언제 에벤키와 에벤키족으로 분화되었으며 에벤키와 에벤키의 어원과 의미는 무엇일까? 이 문제는 독립적이 아닌 상호연관 속에서, 또 언어학, 고고학, 인류학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만 명확한 규명이 가능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언어학적 관점에서 통구스, 에벤키, 에벤키의 기원과 의미 파악에 집중할 것이다.

또 본 논문에서는 에벤키와 에벤키족 자명(自名)의 기원 및 의미를 분석할 것이다. 에벤키족과 에벤키족에게는 에벤키와 에벤키라는 용어 외에도 스스로 자신들을 가리키는 용어인 자명이 있다. 자명은 다른 민족이나 씨족 그룹과 자신 그룹의 차별성, 자신 그룹만의 동질성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자명 분석은 미시적 차원에서 두 민족의 인종적, 민속학적 특성 파악에 도움을 줄 것이다.

2) Соколова, З. П. & Туголуков, В. А., "Старые и новые названия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1, 1983, с. 81.

3) Алексеев, В. П., *История первобытного общества*, Высшая школа, 1990, с. 91.

II. 통구스, 에벤키, 에벤의 어원

1. 통구스의 어원

러시아인이 통구스라는 단어를 처음 접한 것은 16세기 후반으로 1581년-1583년 『시베리아제국(Sibirskoe tsarstvo)』에서 통구스를 언급한 이후이다. 17세기 문헌에서 통구스는 특정 씨족명처럼 사용되면서 주로 레나강과 스타노보산맥 사이에 거주하는 씨족 그룹을 가리켰으며 오츠크해 연안의 씨족 그룹은 라무트키라고 불렀다. 그런데 통구스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기원했으며 어떤 경로로 에벤키와 에벤족을 지칭하게 되었을까? 또 어떤 경로로 통구스제어권의 모든 민족을 가리키게 되었을까? 에벤키와 에벤족은 지금은 서로 다른 민족으로 분류되지만 18세기 이후 언어, 문화, 민속학 자료에 근거할 때 서로 친족관계에 있다. 언어적으로 볼 때 에벤키와 에벤족 뿐만 아니라 통구스 제어권 민족들은 아주 먼 과거에는 동일한 민족, 동일한 생활권에 속했었는데 어느 시점부터인가 민족 분화를 겪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통구스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에벤키와 에벤족을 가리키다가 그 이후에는 언어적으로 친연관계에 있는 모든 통구스제어권 민족들을 통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통구스의 어원에 대해서는 크게 고아시아제어 기원설, 중국 토착민족 기원설, 타타르어 기원설 등이 있다.

1) 고아시아제어 기원설

통구스(tungus)는 '어근 통(tun)+접미사 -구스(gus)'의 구조로 분리할 수 있는데 -gus는 알타이제어권의 씨족표지 접미사 -gar, -gir, -gur와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투르크제어권 씨족명에서는 이미 기원후 첫 세기부터 이 유형의 씨족표지 접미사가 발견된다⁴⁾. 접미사와 같은 기능어는 내용어보다 늦게 형성되기 때문에 투르크제어에서 통구스의 어근 '통'에 상

4) Василевич, Г. М., *Эвенки: Историко-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черки XVIII-начала XX в.*, Наука, 1969, с. 10.

응하는 단어의 형성 시기는 접미사 '구스'보다 선행한다. 따라서 '퉁'의 형성 시기는 기원 후 첫 세기 이후로는 절대 내려올 수 없기 때문에 이미 먼 고대에 출현했다고 할 수 있다.

'퉁'의 구체적인 어원 파악은 힘들지만 "축치어에 적이라는 의미의 '탕기트(tangit)'란 단어가 있고 티벳족에 '탕구트(Tangut)'라는 씨족이 있다"(바실레비치, 1969: 10). 탕기트와 탕구트는 '어근 탕(tan)+접미사 -기트/구트(git/gut)'의 구조이며 두 단어의 의미를 근거로 '탕'의 의미를 사람, 인간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탕'과의 음성적 유사성에 근거해 '퉁'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한다면 '퉁'의 초기 의미는 사람, 인간이 되어 알타이제어권 민족명이나 씨족명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람, 인간이라는 의미의 단/잔(dzhan)~, 주/추(chu)~, 탄/탕(tan)~과 같은 범주의 어휘에 포함시킬 수 있다.⁵⁾ 이 단어들은 기원상 알타이제어권 뿐만 아니라 우랄제어, 예니세이제어, 고립어 등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개별 언어권의 경계를 뛰어넘어 고대 고아시아제어에서 유래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퉁구스는 고대 고아시아제어에서 유래했으며 '특정 사람들의 집단'이라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2) 중국 토착민족 기원설

"퉁구스라는 단어의 기원은 고대 중국의 동호(東胡)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에벤키족은 과거 스스로를 '타이가의 주민'이란 의미로 돈키(donki) 혹은 두난(dunan)이라고 불렀는데 여기에서 퉁구스가 유래되었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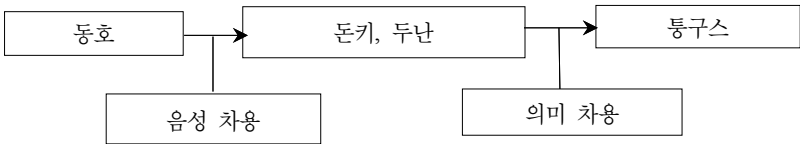
위 텍스트에 의하면 퉁구스는 돈키나 두난에서, 돈키나 두난은 동호에서 기원하는데 위 텍스트는 중국 문헌에 근거하기 때문에 중국문헌의 한자음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 동호의 중국 상고음/중고음/현대음 발음은 toongaa/tuNÄuo/dōngHú'이다.⁷⁾ 동호족이 활동했던 시기가 주로 기원전 700년-200

5) 한국어의 '단군'의 '단'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6) Миллер, Г. Ф., *История Сибири*, М.: Вост. лит., 2005, с. 465.

7) 본 논문에서 중국어 발음은 <http://www.castling.org>를 참고했다(2015. 04. 01).

년으로 중국 상고음 시기에 해당되므로 에벤키족이 자신을 지칭하던 용어인 돈키, 두난과 음성학적으로 유사하다. 또 돈키, 두난은 통구스와 음성학적으로 유사하므로 동호→돈키, 두난→통구스의 연결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동호는 '동쪽 지방의 사람'이란 의미로 중국 전국시대(기원전 403-221년) 말 무렵 중국 인근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따라서 동호와 돈키, 두난의 의미적 관련성은 적어 보인다. 하지만 음성학적 차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림 1>처럼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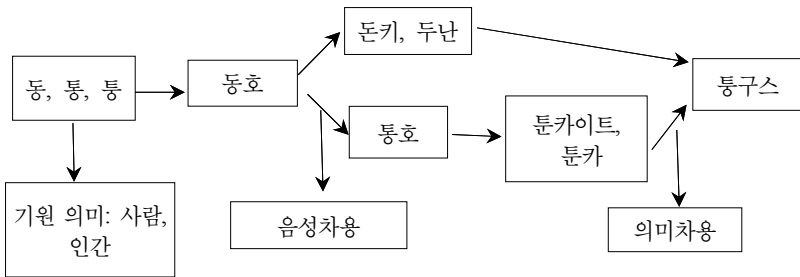


<그림 1> 통구스의 중국토착민족 기원설 도식

따라서 통구스의 음성학적 기원은 '동호', 의미적 기원은 '돈키', '두난'이 되어 '타이가의 주민'이란 의미를 지니게 된다. 통구스의 동호족 기원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는 지명이다. 부랴트 서부의 툰카(Tunka)라는 지역은 몽골비사의 툰가이트(Tunkait)를 연상시키는데 툰카이트는 '숲'이라는 의미의 '통호(tongho)'에서 기원한다⁸⁾. 그러면 '통호'는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통호'는 동호족과 음성학적으로 유사하며 동호족의 주요 활동 무대가 몽골고원의 동부, 요령 지방과 만주, 북만주 등이므로 동호족에서 기원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돈키나 두난처럼 의미가 아닌 음성 차용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동호→통호→툰가이트→툰카의 관계가 가능한데 '통호'는 '어근 통(金)+접미사-호(ho)'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바예프의 주장처럼 '통호'의 의미가 '숲'이 아니라 '통호'의 의미는 '숲에 사는 사람'이고 '통'의 의미가 '숲'이 될 것이다.

8) Абаев, Н. В. "Идентичность Танну-Урянхия и Урянхайская проблема," *The Studies of Kogyuryo* 18, 2004, с. 798.

그런데 통호의 통, 통구스의 통의 기원 의미는 무엇일까? 처음부터 '숲'이나 '타이가'를 의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술했듯이 '통', '통'을 고아시아제어의 '단/잔~, 주/추~, 탄/탕~'과 같은 범주의 단어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원 의미는 사람, 인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구스의 어원은 고아시아제어와 중국 고대 동호족 기원설을 함께 고찰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다. 즉 '통', '통'은 고아시아제어에서 사람, 인간의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기원하여 알타이제어권에 차용되었고 이 언어권의 생활문화적 특성에 맞게 '숲', '삼림', '타이가'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으며 시간이 흘러 씨족표지 접미사 '-구스(gus)'⁹⁾가 추가되면서 '숲, 삼림, 타이가의 주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다음 <그림 2>처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 통구스의 어원

3) 타타르어 기원설

중국 문헌에 의하면 "통구스족은 고대부터 돼지 사육에 종사하며 사면의식 때 돼지를 제물로 바친다고 알려져 있다"¹⁰⁾. 그런데 중국문헌의 통구스족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동시베리아에 거주하는 에벤키와 에벤키족은 돼지와

9) 통구스어파를 비롯하여 알타이제어의 민족명이나 씨족명이 통상 '어근+접미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통구스도 '어근(통)+접미사(-구스(gus))'의 구조라고 유추할 수 있다.

10) Бичурин, там же, с. 7.

는 언어, 문화, 생활경제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에벤키와 에벤키족일 가능성은 없다. 중국 문헌의 통구스는 돼지 사육, 돼지 숭배와 관련이 깊은 여진족, 만주족 계통일 것이다. 18세기 연구자들은 위 중국 문헌에 근거하여 통구스의 어원을 투르크제어에서 돼지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와 연결시켰다. 투르크제어에 통구스와 음성학적으로 유사하면서 돼지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가 있을까? 타타르어에 돼지라는 의미의 '둔기즈(dungyz)'라는 단어가 있다.¹¹⁾ 그런데 정말로 타타르족이 특정 민족을 돼지라는 의미의 둔기즈라고 불렀을까? 물론 타타르족이 처음에는 돼지 사육, 돼지 숭배 풍습이 있는 만주족과 여진족을 돼지라는 의미로 통구스라고 불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여진족, 만주족과 인종학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에벤키와 에벤키족에게까지 이 용어를 확대 적용했을까? 돼지 사육에 종사한 적도 없고, 돼지가 특별한 민족 문화적 상징성도 없는 에벤키와 에벤키족에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모순적이다. 게다가 한 용어로 에벤키와 에벤키 두 민족을 지칭했다는 것도 모순적이기 때문에 통구스의 타타르어 기원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러시아인은 누구로부터 통구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 통구스족과 인접해서 생활한 야쿠트족으로부터 들었을까? 하지만 러시아인이 야쿠트족에게서 통구스라는 단어를 들었을 가능성은 적다. 야쿠트족에게는 돼지라는 개념이 없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인의 시베리아 이동 경로는 서→동이기 때문에 러시아인은 보다 서쪽에 있는 에벤키족을 조금 더 동쪽에 있는 야쿠트인보다 먼저 마주칠 수밖에 없다. 그런데 13세기부터 타타르족이 이르티시강 유역에서 통구스족과 인접해서 생활했다는 점을 근거로 투골루콥은 "러시아인은 이르티시강 유역의 타타르족로부터 통구스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다"¹²⁾고 주장한다. 만일 그렇다면 당시 타타르족은 돼지라는 의미로 통구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타타르족이

11) *Татар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Сост. К. С. Абдразаков и др., Сов. энциклопедия, 1966, с. 641.

12) Туголуков, В. А., "Тунгусы среди татар и хантов на Иртыше и Оби в XVI-XVII вв.," *III Всесоюзная тюрколог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 и история. Тезисы и докладов и сообщений*, 1980b, с. 170.

통구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통구스는 이미 고유한 의미를 지니면서 에벤키와 에벤횈족, 더 나아가 통구스제어권 민족들을 지칭하고 있었을 것이다.

2. 에벤키와 에벤훈의 어원과 의미

에벤키와 에벤훈은 이들 민족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통구스보다 기원과 의미 파악이 더 어려워 보인다. 에벤키의 기원에 관해서는 중국 오환족 기원설이 주도적인데 이러한 논의의 출발점이 된 것은 게오르기의 주장이다. 게오르기에 의하면 "통구스는 자신을 에본(Evon)이라 불렀으며 선조들은 '에본' 또는 '돈키(Donki)'라고 불렀다"¹³⁾.

밀러(Miller), 피셔(Fisher), 게오르기(Georgi)는 에본이 음성학적으로 에벤키족보다는 에벤훈족에 더 가깝다면서 "에본은 owen, 러시아어로는 oven인데 7세기 중국 문헌에 등장하는 오환족과 관련이 있다"¹⁴⁾고 주장한다. 사실 오환족은 순록 사육을 익히 알고 있었고 이끼로 순록을 길렀으며 수레에 끌고 다녔다고 알려져 있다. 에본이 에벤훈에 상응한다면 에벤훈이 에벤키보다 더 먼저 생긴 단어이고 에벤훈족이 에벤키족보다 통구스의 선조와 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에벤키족과 에벤훈족의 의식을 통해 알 수 있다.

"에벤훈족은 에벤키라는 단어가 자신들의 민족성으로 더 확실하게 규정해 준다는 생각에 자신들을 의식적으로 에벤키라고 한다. 그런데 에벤키족 중 자신을 에벤훈족이라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Соколова & Туголуков, 1983, с. 83)

그렇다면 '에본'이라는 단어가 현재의 에벤훈과 등가 개념이라고 할 수 없으며 에본은 에벤키와 에벤훈족이 분리되기 전에 이들을 함께 지칭하던 용어일 것이다. 게오르기에 의하면 통구스가 자신의 선조를 지칭하던 용어는 에본과

13) Георги, И. Г., *Описание всех в Россий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 народов 3*, Типография Вейнбрехта и Шнора, 1777, с. 34.

14) Бичурин, там же, с. 35.

돈키인데 돈키는 본장 1절 통구스의 어원에서 이미 상술했다. 그렇다면 예본이란 단어는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오환이라는 단어는 7세기 훨씬 이전의 문헌에서 선비라는 단어와 함께 발견되는데 고대 중국에서는 오환을 오벤(oven)이나 에벤(even)으로 읽었다".¹⁵⁾

"12세기 중국 역사서에 근거할 때 자바이칼리에 산악 타이가에 살았던 순록사육민족인 오환족이 에벤키와 에벤족의 선조로 추정된다".¹⁶⁾

위 주장을 근거로 오환을 통구스의 선조를 가리키는 예본과 연결시킬 수 있다. 오환은 중국 상고음/중고음/현대음 발음이 qaag^waan/ouúwan/wūhuán 이므로 발음상 에벤키보다는 에벤에 더 가깝다. 그런데 과연 오환족이 에벤키나 에벤족과 관련이 있을까?

"5-7세기경 실위족이 자바이칼리에와 프리아무리예에 거주했는데 그들의 남쪽 그룹은 거란족이라고 불렸다."¹⁷⁾

"7세기 비팀강과 올렉마강 수원지에서 탈것으로 50일정도 북동쪽으로 이동하면 순록사육사냥꾼 오환족이 있었다."¹⁸⁾

"에벤키족 에단(Edjan) 씨족의 설화에 의하면 오논강과 아뉴이 강 서쪽 산악 지역에서 동쪽으로 유목을 떠나던 중 자신들과 언어와 외모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실위족과 거란족이었다. 거란족은 말과 순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벤키족은 그들에게서 아내를 맞이한 뒤 아내와 순록

15) Шавкунов, Э. В.,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и памятники его культуры в Приморье*, Наука, 1968, сс. 117-121.

16) Туголуков, В. А., *Этнические корни тунгусов. Этногенез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Наука, 1980, с. 159.

17) Бичурин, там же, с. 92.

18) Китманов, Д. А., "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неврозы среди тунгусов," *Советский Север* 7(8), 1930, с. 51.

몇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되돌아왔다."¹⁹⁾

중국 고대민족의 계보는 무척 복잡하지만 동호족은 오환과 선비로 나누어지며 선비족 아래에 훗날 몽고족이 된 실위족이 있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위 텍스트를 통해 고대 통구스족의 초기 거주지인 바이칼 지역과 아무르강 인근에 동호족의 후예인 오환족, 선비족 혹은 실위족, 거란족 등이 거주했는데 에벤키족과 유사한 순록문화가 있었고 거란족은 에벤키족의 선조들과 족외혼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바실레비치(1949)에 의하면 에벤키어와 에벤어는 중세 중국문헌에 말갈과 발해의 구성원이며 순록 사육과 사냥에 종사한다고 기록된 특정 씨족 그룹의 언어와 공통점이 많다. 또 레빈(1958)에 의하면 예니세이 에벤키 그룹에서 수집한 석기와 골조 무기들은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프리바이칼리에 마을과 무덤에서 발굴된 무기들과 외양이 무척 유사하다."²⁰⁾

바실레비치와 레빈의 주장에 근거한다면 에벤키와 에벤족은 고대 바이칼~아무르 노선에서 활동했던 동호~오환~선비~실위족, 거란족; 숙신~음루~물길~말갈~여진~만주족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내용을 근거로 에벤키, 에벤의 어원을 오환→예본→에벤키→에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장 1절에서 통구스의 어원을 동호→돈키, 두난→통구스라고 했다. 그런데 오환족이 동호족의 후예이므로 통구스가 예본보다 더 일찍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는데 어째서 동일한 민족에 대해 돈키 혹은 예본이라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했을까? 러시아인은 에벤키와 에벤이라는 단어를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들은 것일까?

"에벤키란 단어는 18세기 타버트(Tabbert)가 자바이칼리에 에벤키에

19) Василевич, Г. М., *Исторический фольклор эвенков. Сказания и предания*, Наука, 1966, сс. 59-93.

20) Туров, М. Г.,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ародины северных тунгусов и этногенеза эвенков," *Известия Ирку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2), 2013, с. 245.

게서 듣고 기록한 것이며 에벤이라는 단어는 19세기 예니세이 통구스로부터 들은 것이다. 1930년 앙가라-예니세이의 후손들인 심강 통구스들은 자신들도 과거에는 에벤이라 불렀다고 한다. 에벤은 안강, 인디기르카강, 캄차트카 라무트와 오츠크 라무트 일부의 자명인데 현재는 예니세이 통구스, 앙가라와 자바이칼리에 에벤키, 최북동의 에벤키 사이에 보존되어 있다."²¹⁾

러시아인이 에벤키와 에벤이라는 단어를 접한 시기는 두 민족이 분리되어 주요 생활무대에 대한 경계 설정이 끝나고 나서 에벤키와 에벤이란 단어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던 시기이다. 즉 러시아인은 에벤키와 에벤이라는 단어를 통구스라는 단어에 보다 늦게 들었는데 이는 통구스라는 단어가 더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런데 통구스라는 용어가 있는데 왜 에벤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을까?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는 없지만 '숲, 타이가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의미의 통구스에 함의되지 않은 통구스족의 또 다른 특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그 또 다른 특성이란 무엇일까? 통구스가 '타이가', '사냥문화'와 연결되는 용어라면 에벤은 '순록문화'와 연결되는 용어일 것이다. 즉 에벤은 통구스가 순록문화를 받아들인 이후 순록통구스를 도보통구스와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일 것이다.

그러면 에벤키라는 단어는 어디서 기원하는 것일까? 소스놉스키는 에벤키를 고대 중국의 선비족과 관련시킨다.

"소스놉스키에 의하면 에벤키는 고대 중국의 유목민족인 선비족에 상응하는데 케트어로 선비는 헤벤바(Hevenba)이다. 현재의 에벤키는 과거 강력한 민족이었고 위대한 제국의 지배층이었던 선비족의 후예인 실위족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²²⁾

21) Василевич, там же, 1969, с. 11.

22) Залкинд, Е. М., "Древние народы катийских хроник и эвенки: Хунну, Дунху, Сянь-би, Ши-вей(обзор теорий),"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1, 1937, с. 75.

선비의 중국어 상고음/중고음/현대음은 sianpie/sienpje/xianbei로 케트어 헤벤바와 음성학적으로 유사하므로 선비→헤벤바는 가능하지만 선비→헤벤바→에벤키의 관련성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 실위족은 6세기~10세기 중국 동북부의 닐장강, 아르군강, 흑룡강 유역에서 활동했던 민족으로 7세기 중국문헌『수서(隋書)』와 『북사(北史)』에는 선비족 우문부의 먼 후손으로, 11세기 중국문헌『신당서(新唐書)』에는 북부 동호의 하나이며 정령족의 먼 후손으로 기록²³⁾되어 있는데 대개 동호족과 선비족의 후예로 알려져 있다. 고대 퉁구스족의 거주지는 만주 북부, 프리아무리에, 자바이칼리에 동쪽, 프리바이칼리에, 야쿠티야 남쪽으로 추정되므로 실위족과 그 선조들인 동호족, 선비족의 거주 지역과 유사하다. 따라서 퉁구스 계열 민족과 동호 계열 민족의 관련성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선비와 에벤키에게서 음성학적 유사성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에벤키가 선비에서 기원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실 민족명 에벤키의 기원 규명을 위해 "에벤족은 에벤이 에벤키에서 접미사 -ki를 없앤 순수한 에벤식 민족명이라고 생각한다"²⁴⁾는 주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즉 에벤키는 에벤족이 북쪽으로 이주하고 언어와 문화적으로 원형퉁구스 그룹과 분리된 이후 두 그룹을 구별하기 위해 예본에 접미사 -ki를 첨가하여 만들어졌고 에벤은 에벤키에서 접미사 -ki를 생략하여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다. 상술한 내용을 종합한다면 오환→예본→에벤키→에벤의 관계가 된다.²⁵⁾

그렇다면 에벤키와 에벤의 의미는 무엇일까? 1744-1745년 야코프 린테나 우이에 의하여 에벤키의 의미가 밝혀졌다. 그에 의하면 "에벤키는 에벤키어의 에분키(evunki)나 에벤키(evenki)에서 유래하는데 그 의미는 "'황단하여',

23) 참고: <http://ko.wikipedia.org/wiki/%EC%8B%A4%EC%9C%84>(2015.03.30)

24) Туголуков, В. А., *Этногенез и этн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Эвенков*, Наука, 1997, с. 14.

25) 이처럼 에벤이 에벤키에서 유래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에벤키족과 에벤족의 인지에 대한 추론에 의한 것이다. 즉 에벤인들이 자주 자신을 의식적으로 에벤키라고 명명하는데 이는 에벤키가 자신들의 민족성으로 더 확실하게 규정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에벤키 중 에벤이라고 명명하길 선호하는 사람은 없다(Соколова & Туголуков, там же, с. 83).

'가로질러'이다"²⁶⁾. 에벤키인은 '횡단하여', '가로질러'라는 의미가 자신의 선조들이 북시베리아의 산악타이가를 가로질러 이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에벤은 에벤키에서 접미사 -ki가 탈락된 형식이므로 에벤은 에벤키와 '횡단하여', '가로질러'라는 의미를 공유하게 된다.

III. 에벤키와 에벤족의 자명(自名)

에벤키와 에벤족 뿐만 아니라 시베리아 소수민족들은 자명이 있다. 이 용어는 씨족명과는 달리 광의의 거주 지역 안에서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그룹을 가리킨다.

1. 에벤키족의 자명

에벤키족의 자명에는 비라리, 마네그리, 킬렌, 함니간, 솔론, 온그코리, 둔칸, 램테르, 돈키, 오이벤키, 오로촌, 일레, 마타, 훈디살 등 무척 다양한데 주로 거주지역과 생활 방식의 차이에 근거한다. 비라리, 마네그리, 킬렌은 에벤키족 기원이며 함니간, 솔론, 온그코리는 몽고족 기원이다.²⁷⁾

"프리아무리에 종류의 에벤키를 비라리, 마네그리, 킬렌이라 부른다. 비라리는 이미 17세기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주로 올렉마강 상류에서 유목하며 마네그리와 킬렌은 에벤키족 씨족명에서 기원한다. 자바이칼리예의 에벤키는 함니간, 솔론, 온그코리라고 불리는데 온그코리는 중앙아시아의 에벤키에게도 해당한다. 솔론은 몽고족에서 기원하는데 에벤키족 솔론은 항상 몽고족과 함께 생활했으며 고대 몽고에 솔론이라는 마을이 있었다. 솔론은 '상류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의미의 에벤키족 씨족명 솔

26) ЦГАДА, ф.199, д.511, ч.2, №9, л.6.

27) 익명의 심사위원의 지적에 따라 『러시아 연방의 절멸 위기 알타이 언어』(2013, pp. 309-310) 을 참고한 결과, 이 외에도 본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자명 이외에도 현재 부랴트 공화국에서 유목하던 에벤키족에게는 '무르첸(murchen)', 니즈니야 통구스카 강, 포드카만나야 통구스카 강 상류 지역의 에벤키족에게는 '비에(byic)', 볼샤야 비라 강 연안의 에벤키족에게는 '비라첸(birachen)이라는 자명이 더 있었다.

로곤과는 관련이 없다. 온그코리는 몽고족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온그코리는 몽고족 씨족명 온구트에서 기원했을 것이다."²⁸⁾

함니간은 몽고족 기원으로 "함이란 단어는 몽고족 중 예니세이강 인근의 니룬 씨족과 관련이 있으며 이들은 아주 옛날부터 강을 '헴'이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는 동북아시아에 와서 한>칸으로 변형되면서 혈통의 의미도 가지게 되었다"²⁹⁾. 따라서 함니간은 강과 인접한 곳에서 거주하던 에벤키족의 자명일 가능성이 높지만 구체적인 강 이름을 파악하기는 힘들다. 온그코리는 몽고족과 에벤키족의 혼혈 그룹으로 여타 에벤키 씨족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어 독자적인 민족 그룹으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언어계통 상 에벤키족의 방언 그룹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에벤키족의 자명 둔칸(Dunkan)은 '땅', '육지', '대륙'이란 의미의 에벤키어 '둔네(dunne)', 에벤어 '돈레(donre)' 혹은 '둔레(dunre)'와 유사하다. 그런데 에벤키인은 "둔칸을 땅, 육지가 아니라 숲으로 해석한다"³⁰⁾. 또 "둔칸은 지금은 하바롭스크 변경 투구로-추미칸 지역 에벤키족의 자명이지만 과거에는 더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다"³¹⁾.

그런데 '둔칸'이 에벤키어의 '둔네', 에벤어의 '돈레' 혹은 '둔레'와 음성학적으로는 유사하지만 에벤키인이 '둔칸'을 땅, 육지, 대륙이 아니라 숲으로 해석하는 점으로 미루어 위 단어에서 기원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에벤키족이 과거 자신을 부르던 용어인 '돈키'와 음성학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둔칸은 '돈키'에서 기원했으며 '돈키'의 의미를 이어받아 '타이가의 주민'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과거 하바롭스크 변경 투구로-추미칸 지역의 에벤키에게는 람테르라는 민족명이 더 있었는데 이는 에벤족을 지칭하는 라무트와 음성학적으로 유사하

28) Василевич, там же, сс.9, 10.

29) Абаев, там же, с. 798.

30) Полевые материалы В. А. Туголукова, 1965, тетр.1 л.64.

31) Паллас, П. С.,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разным провинциям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мператор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1788, с. 330.

다. 과거 람테르라는 자명은 지금보 더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는데 "에벤키어인은 람테르를 '바다표범 기름 냄새를 풍기는'이라고 해석한다"³²⁾. 에벤키어로 '라무'는 '바다'이며 람테르를 축어적으로 번역하면 '해안의'라는 의미이므로 람테르는 해안 에벤키족의 자명일 것이다.

그런데 자바이칼리에 통구스에게는 동키(Donki)나 오이벤키(Oivenki)라는 자명이 더 있었다. 동키나 오이벤키는 발음상 돈키와 에벤키에 상응하고 자바이칼리에 지역에 특징적인 점으로 미루어 통구스, 에벤키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이며 이미 고대부터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에벤키족의 자명 중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이 오로촌(Orochon)과 복수형 오로출(Orochol)이다. 이 용어는 이미 17세기부터 알려졌으며 시베리아의 많은 여행객들은 이 용어를 에벤키족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한다.

"17세기 모스크비틴, 페트로프가 작성한 목록에 의하면 오로출은 사냥 통구스에 속한다."³³⁾

"18세기 메세르시미트는 투루한강 에벤키로부터, 19세기 모르드비노프도 동일한 지역의 에벤키에게서 오로촌이라는 단어를 들었으며 러시아 문헌에 오로촌이란 단어를 처음 알린 사람은 게오르기이다."³⁴⁾

오를로프에 의하면 19세기 중반 "오로촌은 비탐강, 올렉마강, 통기라강, 녹자강, 올도야강, 아무르강의 통구스를 지칭한다"³⁵⁾. 하지만 현재 이 용어는 아무르강 우측 지류의 상류에 거주하는 가축과 말사육 통구스만 지칭하는데 이 용어의 기원과 의미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 에벤키어로 '오론(Oron)'이 '순록'이라는 점을 들어 과거에는 오로촌이 에벤키족의 순록사육 풍습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널리 퍼져 있었다.

32) Полевые материалы В. А. Туголукова, 1965, тетр.1 л.64.

33) Степанов, Н. Н., "Рус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на Охотском побережье в XVII в. и их материалы о тунгусских племенах," *УЗЛГПИ* 48-3, 1939, с. 196.

34) Василевич, там же, с. 11.

35) Орлов, А. С., "Амурские ороченны," *ВРГО* 21-6(2), 1857, сс. 165-166.

시렌크는 이 용어의 기원을 만주어에서 찾으면서 이와 유사한 만주어 단어로 "집 순록을 의미하는 '오론 부구(oron' bugu)'와 씨족명이면서 동시에 순록사육, 순록사육자를 의미하는 '오론초(oron'cho)'을 들고 있다.³⁶⁾" 하지만 마약은 오로촌은 순록사육이 아닌 가축사육에 종사했으며 생활, 문화적으로 순록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오로촌이 순록사육을 의미한다는 입장에 반대한다.³⁷⁾ 이처럼 '오로촌'의 기원에 대해 연구자마다 입장이 다양하여 이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의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언어 구조적 관점에서 '오로촌'이 '어근 오로(oro)'와 '~에 거주하는 주민'이란 의미의 접미사 -촌(chon)의 결합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첸(chen)은 7세기 여진어에서는 지명표지 접미사였으며 에벤키어에서 -촌/첸(chon/chon)은 '-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의미의 씨족표지 접미사인데 몽고어에서 기원한다."

오로촌은 에벤키족이 순록 사육에 종사하기 이전인 먼 고대에 만들어졌으며 '오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용어가 '오로'라는 지명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것인데 실제로 오로란 지역이 있을까? "아무르강 중간 지류에 오로강"³⁸⁾이 있기 때문에 오로촌은 처음에는 오로강에 거주하던 에벤키족 특정 씨족 그룹을 지칭했을 것이다.

"아무르 지역의 가축사육 에벤키족은 지금도 오로촌을 오로강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오로'라는 단어는 스타노보산맥과 야블로니 산맥의 에벤키족에게 전파된 후 본디 의미를 상실하고 '순록'이라는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고 '오로촌'도 '순록 사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란 의미로 바뀌었다."³⁹⁾

36) Шренк, Л., Об инородцах Амурского края Т.1, Изд. АН, 1883, с. 292.

37) Маак, Р., Путешествие на Амур, совершенное по распоряжению Сибирского о отдела РГО в 1855г. Р. Мааком, Изд-во С.Ф.Соловьёв, 1859, с. 165.

38) Маак, Р., там же, с. 166.

39) Василевич, там же, 12.

오로촌은 "프리야무리에 위쪽 지역과 자바이칼리에 순록 통구스와 말 통구스에 속하는 규모가 큰 그룹의 자명이었는데 일부는 일찌감치 순록통구스가 되었다"40). 설화에 근거할 때 이들은 언어적으로 도보사냥꾼에 가까웠던 시베리아와 키단 지역 최초의 순록사육자였으며 이들은 자바이칼리에 산악 타이가의 도보사냥꾼들과 결혼을 했고 그들로부터 아내와 순록을 데리고 왔다. "오로촌은 음성학적으로 특별한 변화 없이 만주어를 제외한 모든 만주-통구스제어에 확산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통구스제어의 요소들을 전해준 만주족의 선조가 떠난 후에 순록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후 '오로 지역의 주민'이란 뜻의 오로촌은 '순록의'라는 의미의 '오로치(orochi)'와의 음성학적 유사성에 의해 '순록 사육'이란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다. 이는 처음에는 아무르강 남쪽방면에서 험간 산맥 지맥에서만 발생한 현상이었는데 점점 더 넓은 지역으로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에벤키의 자명 일레(Ile)는 '사람'이란 의미이며 카단지역, 에벤키자치관구 동쪽 지역, 레나강 상류의 에벤키족 사이에 널리 퍼져 있다. 일레는 시베리아 제민족 사이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대체로 '민족, 씨족, 나라' 등의 의미를 지닌 투르크어 일(il)~엘(el)과 유사하다. '일'이란 단어는 기원후 초기 통구스족이 프리바이칼리에~레나강 사이의 투르크족에게서 차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에벤키어에서 '일'은 '줄, 활시위'란 의미이므로 일레는 사냥에 종사하는 에벤키족을 중심으로 사용된 용어일 것이다. 에벤키족의 또 다른 자명에는 마타(Mata)가 있는데 올렉마강 상류와 비탐강 접경지역의 지류에서만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데 에벤키어와 에벤어에 공통되며 두 언어의 의미도 '사돈'이나 '이방인'으로 유사하다. 따라서 이 용어는 통구스가 아직 분리되기 전인 먼 고대 고아시아어에서 차용한 단어로 추정된다.

이 외에 에벤키족의 자명에 훈디샬(Hudysshal)이 있는데 "1723년 메세르 시미트는 니즈나야 통구스카강의 통구스로부터 이 단어를 들었다. 지금도 이 카강과 니즈나야 통구스카강 지류의 에벤키족 가운데 훈니칼(Hunnikal)이라

40) Василевич, Г. М., "Типы оленеводства у тунгусоязычных народов," VII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онгресса антропологических 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их наук, Наука, 1964, с. 10.

는 씨족이 있다"⁴¹⁾. 훈디살은 에벤키족의 단순한 자명이 아니라 도보 개사냥꾼과 순록 사냥꾼을 구별하게 위해 사용한 용어로 일정정도 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17세기 양가라강을 여행했던 이테스는 개를 제물로 바치는 광경을 목격했다. 1659-1660년 폴란드인 카펜스키-들루직은 양가라강을 여행할 때 죽은 이의 무덤 옆에서 그 후손들이 개를 죽이는 광경을 목격했다. 당시에벤키와 에벤이라 불리는 사람들 대다수의 가슴가리개에는 개모양의 테두리가 있었다."⁴²⁾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통구스족의 개 문화는 먼 고대에 시작되었을 알 수 있다. 순록사육에 종사하기 이전에 유목지를 옮기거나 사냥을 갈 때 도보 사냥꾼들은 개를 동반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개 숭배문화가 발생했을 것이다. 통구스의 개 숭배문화는 1930년대까지도 이어졌다. 개 숭배문화는 오환족과 에벤키족을 연결시켜주면서 예본의 기원이 오환이라는 주장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중국문헌 삼국지 오환편에 의하면 "오환인들은 사람이 막 죽었을 때 ... 살찌게 기른 개 한 마리에게 상여를 끝게 하고... 개에게 의탁하여 죽은 이의 신령을 적산(赤山)까지 호송하게 한다."⁴³⁾

이 외에도 설화 속에서 '가날치(Ganalchi)'와 '우란카이(Urankaj)' 같은 에벤키족의 자명을 더 발견할 수 있다. 가날치는 양가라강과 포트카멘나야 통구스카강 연안의 에벤키족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포트카멘나야 통구스카강 에벤키의 역사적 선조라고 할 수 있다.

"가날치는 다시 쿠르카기르와 모물로 나누어지고 쿠르카기르는 다시 모모, 코체니, 호르보로 나누어진다. ..." ⁴⁴⁾로 미루어 가날치는 특정 씨족명이

41) Василевич, 앞의 책, 1969, с. 13.

42) Василевич, Г. М., "Корыгообразная нарта сымских эвенков," *Сбор. Музея антроп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АН СССР* 10, 1949, сс. 93-97.

43) <http://egloos.zum.com/ragwangfal/v/1688423>

44) Туголуков, В. А., "Эвенки бассейна рек Турухан," *Соци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и культура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Наука, 1974, с. 92.

나 에벤키족의 자명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포드카멘나야 통구스카강에 만들어진 씨족연맹이라고 할 수 있다. 에벤키어로 가날치는 '사격수', 동사형 '가나트'는 '활을 쏘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가날치는 에벤키족이 순록 사육을 하지 않던 시기, 사냥이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던 시기에 생긴 용어로 활, 화살 등 에벤키족의 생활방식과 관련된 특정 시기의 에벤키를 가리키는 용어일 것이다.

우란카이는 주로 "자바이칼리예~프리야무리에 산악 타이가 사냥꾼의 자명이다"⁴⁵⁾. 에벤키 설화 속에서 우란카이는 도보사냥꾼으로 묘사되는데 주로 자바이칼리예의 오논강과 하바롭스크 변경의 아뉴이강 서쪽 산악지대에 거주한다. 17세기 문헌 속에서 우란카이는 "초기 몽고족이나 투르크족처럼 가슴가리개를 두르고 짧은 바지를 입지만 이들과 달리 옷은 짧고 앞으로 여미는 형태이며 신발은 신지 않는다"⁴⁶⁾. 이들의 옷차림은 통구스족과 비슷한데 "우란카 혹은 우란칸은 몽고시대와 7세기 이전까지는 다양한 언어나 문화를 가진 씨족그룹의 통칭이었고 통구스도 그 중의 하나였으며 7세기 통구스족의 우란카이는 사안에 거주했다"⁴⁷⁾. 그런데 통구스의 우랑카이는 여진족의 씨족명 우랑하 혹은 오랑개⁴⁸⁾, 중국 흥안령 산맥과 바이칼 호수 중간 내몽고자치구의 우랑카이고원⁴⁹⁾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우랑카이는 '어근 우란(uran)+씨족표지 접미사 -카이(kaj)'의 구조로 '우란'의 기원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우랑카이의 초기 의미를 '특정 집단의 사람들'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45) Болдырев, Б. В., *Эвен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2*, Филиал СО РАН ГЕО, 2000, с. 218.

46) Викторова, Л., "К вопросу о расселении монгольских племен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IVвеке до н.э.-XII в. н.э.," *УЗЛУУ* 256(7), 1958, с. 59.

47) Долгих, Б. О., "Родовой племенной состав народов в Сибири в XVII в.," *Труды Института Этнографии АН СССР*, 1960, с. 298.

48)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30292&cid=40942&categoryId=31642> (2015. 03. 10)

49) <http://blog.daum.net/salvia24/14616166> (2015.03.21)

2. 에벤족의 자명

에벤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17세기 초이다. 하지만 이 단어는 러시아인이 시베리아에 진출하기 훨씬 이전부터 프리앙가리예와 프리바이칼리예에서부터 북동지역에 이르기까지 널리 전파되어 있었다. 그런데 러시아인들이 민족명으로서 에벤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은 것은 19세기 예니세이 통구스로부터이다. 그러므로 17세기 초 시베리아에 널리 전파되어 있던 에벤이라는 단어는 에벤키와 에벤족의 선조를 일컫는 예본일 가능성이 크다. 에벤족의 자명으로는 이빈, 에벤, 예분, 라무트, 오로치, 메네, 돈디트 킴, 두드케 등이 있는데 1700년대 초까지 에벤족을 지칭하는 이러한 용어 사용은 완전히 산발적인 현상이었다.

에벤족의 자명 이빈, 에벤, 예분의 의미에 대해 "'지역의', '이곳', '산에서 내려감' 등의 의미를 가진다는 입장과 니콜라예프처럼 '난폭한 생각', '검열에 통과할 수 없는 생각'이라는 입장이 있다"⁵⁰⁾. 그런데 위 단어들은 에벤의 음성 변이형으로 보이며 에벤이 에벤키에서 -ki가 생략된 순수한 에벤식이라면 위 단어들도 유사한 근거에 의해 만들어졌을 것이고 의미도 에벤과 같이 '횡단하여', '가로질러'가 될 것이다.

에벤족의 자명 중 '라무트'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미 17세기부터 사용되었는데 "주로 인디기르카강과 콜림강의 통구스를 지칭했으며 이들은 사냥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고 일부는 유목을 하러 오츠크해 연안까지 나갔다"⁵¹⁾. 하지만 당시 이 용어는 아직 민족적, 인종적 의미를 지니지는 못했다. 이와 유사한 용어로 라무트키, 람스키 통구스, 람스키에 무직키 등이 있다. 이 용어들은 바다란 의미의 에벤키어 '라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주로 해안가 주민들을 가리켰다.

"라무트키란 용어는 1638년 포스니크 이바노비치는 양강 상류의 순록 사육 에벤족을 지칭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모스크비틴은 프리모리의 순록 사육 에벤인 오젠칸(에디간)과 오잔트(에단)의 두 그룹을 라

50) Туголуков, там же, 1997, с. 14.

51) Миллер, там же, с. 458.

무트키 무지키라고 불렀는데 여기에 에벤키의 에디간을 포함시키기도 했다."⁵²⁾

라무트키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초로 오츠크해와 마이 지역 촌락 목록(1721)에서 부터인데 여기에서 "순록 통구스, 순록 라무트키, 도보 통구스"⁵³⁾와 같은 용어를 찾을 수 있다. 라무트키는 순록 사육 에벤과 도보 통구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었다. "얀강 산지, 인디기르카강, 코비미강에 이르기까지 여러 곳에 유목 라무트키가 거주하고 있다. ... 오츠크해와 타우이강 인근의 촌락에 도보 라무트키가 살고 있다"⁵⁴⁾는 기록이 있다.

1735년부터 라무트라는 용어로 오츠크해 연안의 에벤키족과 에벤족을 구분하게 되었는데 이 용어를 전파하기 시작한 린테나우는 주로 도보 통구스에게 이 용어를 사용했다. 라무트라는 용어가 러시아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8세기 작가 미상의 작품인 「러시아국가의 방대한 기록(Prostrannoe zemleopisanie Rossijskogo gosudarstva)」(1787)에서다. 하지만 1930년대 초까지 여전히 과거 에벤키를 지칭하던 통구스가 라무트보다 훨씬 자주 사용되었는데 "라무트는 주로 동에벤 그룹 특히 추코트카와 캄차트카 에벤 그룹의 반공식적 민족명으로 사용되었으며 인디기르카강 동쪽의 에벤은 여전히 통구스라고 불렀다"⁵⁵⁾. 결과적으로 라무트와 통구스라는 용어가 혼용되면서 북동시베리아에는 에벤뿐만 아니라 에벤키도 살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었다.

파트카노프는 1897년 인구센서스 목록에서 라무트와 통구스라는 용어가 너무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라무트라는 용어를 이 용어에 이미 익숙해진 해안 지역의 통구스에게만 사용하자고 제안한다. 그럼에도 두 용어의 혼란스런 사용은 이후까지도 이어졌고 1926년 인구센서스 목록에 이르러야 비로소 체계적으로 사용되었다. 현재 지역 기관들에 의하면 야쿠티아

52) Туголуков, там же, с. 13.

53) ЦГАДА, ф.214, кн.980, л.62.

54) ЦГАДА, ф.199, д.365, №1, ч.2, л.62.

55) Патканов, С., *Опыт географии и статистики тунгусских племен Сибири* 1(1), Изд.-СПб., 1906, сс. 23-24.

북동 지역과 추코트카의 주민들은 에벤키가 아니라 에벤족이다.

"1926년 인구센서스 목록에서는 극동 변경 캄차트카 관구의 통구스, 야쿠티야 공화국의 볼룬, 베르호얀, 콜림 관구의 통구스만 라무트라 적고 있다. 북동 시베리아의 그 외 통구스제어 사용 주민은 모두 통구스라고 적고 있다."⁵⁶⁾

오츠크 해안의 순록 사육 에벤에게는 오로치(Oroch)라는 자명이 있는데 복수형 오로츨도 민족명으로 사용된다. 1930년대 초 에벤이 공식적인 민족명으로 인정되기 전 오로치가 공식적인 민족명을 대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오로치라는 자명의 사용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돌간, 우야간, 도이다, 두드키와 일부 씨족들 사이에서만 사용된다"⁵⁷⁾. 그런데 오로치는 어디에서 기원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첫째, 순록이 에벤키어로는 오론(oron), 에벤어로는 오르사그(orsag)인데 단어 구조 상 에벤키어의 오론(oro+n)이 에벤어의 오르사그(or+sag)보다 복잡한 형태이므로 에벤어의 오르사그가 에벤키어의 오론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⁸⁾ 그렇다면 오로치도 에벤키어 '오론'에서 기원하여 순록 사육 에벤을 지칭하게 되었을 것이다. 둘째, 에벤족의 오로치는 에벤키족 오로촌에서 기원하는데 에벤키의 오로촌이 '순록사육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의미를 얻은 뒤 에벤키족에서 분리되었을 것이다. 에벤족의 민족명/씨족명은 에벤키족의 민족명/씨족명에서 접미사를 생략한 경우가 많으므로 오로치는 에벤키족의 오로촌에서 접미사를 생략한 형태일 것이다.

이 외에도 에벤족에게는 '정착생활'이라는 의미를 지닌 '메네(Mene)'라는 자명이 있다. 순록사육 에벤들은 오츠크 해안의 도보 통구스를 메네라고 불

56) *Всесоюзн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1926г.*, 1928, сс. 128, 180-181.

57) Попова, У. Г., *Эвены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М.: Наука, 1981, с. 5.

58) 이는 통구스어 그룹에서는 민족명이나 씨족명 첨가된 접미사가 보다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변해간다는 점에 근거한다. 가령 에벤키족 씨족명 접미사는 모음 →-н 첨가형 → й 첨가형 → -т 첨가형 →-л(р) 첨가형 →-ган/-гар, -гин/-гир 첨가형의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다고 유추할 수 있다. 참고: 엄순천, 「에벤키 씨족명 접미사 분석」, 『외국학연구』 제31호, 2015, 232쪽.

렸는데 이들은 17세기 러시아인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메네는 에벤족이 캄차달족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여기에는 도보 통구스, 정착생활을 하는 코락족, 지역 러시아 토착민, 야쿠트족이 포함된다"⁵⁹⁾. 포포바를 비롯한 일부 연구자들은 메네와 오로치는 먼 고대에서 기원하기 때문에 그 의미 파악이 힘들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로치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미 상술했으며 메네는 음성학적 유사성에 근거할 때 '나무', '장작'이란 의미의 에벤키어 '모(mo)'와 에벤어 '모(mø)', 혹은 물이란 의미의 에벤키어와 에벤어 '무(mu)'에서 기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⁶⁰⁾ 따라서 이 용어가 만들어질 당시 이 그룹의 에벤족 선조들은 나무 혹은 물과 관련된 곳 에서 생활했겠지만 그 정확한 장소 파악은 힘들다.

에벤족을 가리키는 용어로 돈디트킬(dondytkil)이 있는데 돈디트킬은 주로 대륙이나 산악 지역의 에벤족을 가리키기 때문에 '땅, 육지, 대륙'이라는 의미의 에벤키어 둔네(dunne), 에벤어 돈레(donre) 혹은 둔레(dunre)에서 유래했을 것이다. 따라서 해안가 주민을 지칭하는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으며 주로 대륙이나 산악 지역의 에벤족을 가리켰을 것이다. 쇼그렌(1828)에 의하면 "여름의 대부분을 해안에서 보내는 라무트는 바다라는 의미로 나마트킬(Namjatkil)이라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돈디트킬이라 부르는데 이는 '북쪽'이라는 의미의 '돈다(donda)'에서 기원한다"⁶¹⁾.

나마트킬은 해안가 에벤족을 지칭하는 라무트키의 순수한 에벤식 표현이므로 해안 지역 에벤족 주민을 지칭하는데 무리가 없다. 그런데 돈디트킬은 주로 산지나 대륙의 통구스를 지칭하기 때문에 돈디트킬이 북쪽이라는 의미의 돈다에서 기원하여 북쪽 지역에 거주하는 에벤족을 가리킨다는 세그렌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에벤족의 또 다른 자명인 두트케(Dudke)는 지금은 주로 안강과 알라제이강 하구의 라무트화 된 유카기르족을 가리킨다. "두트케는 현재 '용감한', '정직한', '똑바로 걸어가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툰드라', '늪'이라는 의

59) *Полевые материалы В. А. Туголукова*, Архив Ин-та этнографии АН СССР, 1969г., т.1, л.27об.

60) 참고: Болдырев, там же, сс. 353, 358.

61) ААН, ф.94, оп.1, д.3, л.333об.

미의 에벤키어와 에벤어 데트(det)에서 파생⁶²⁾했기 때문에 '툰드라에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IV. 나오는 말

17세기 통구스족은 여러 씨족 그룹으로 나누어져 시베리아의 광활한 영토에서 거주했는데 씨족별로 생활양식과 문화적 차이가 두드러졌다. 따라서 시베리아 여행객들이 전하는 통구스 개별 씨족의 특징은 매우 다양하며 때로는 서로 모순되기도 했다. 이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하나의 단일한 민족으로 자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통구스라는 단일 민족으로 묶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통구스, 에벤키, 에벤의 어원 및 에벤키와 에벤족의 자명 분석을 시도했다. 통구스의 어원에 대해서는 크게 고아시아제어 기원설, 중국 토착민족 기원설, 타타르어 기원설 등이 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통구스의 어원은 고아시아제어와 중국 고대 동호족 기원설을 함께 고찰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통구스에서 '통'은 고아시아제어에서 사람, 인간의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기원하여 알타이제어권에 차용된 뒤 이 언어권의 생활문화적 특성에 맞게 숲, 삼림, 타이가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씨족표지 접미사가 추가되면서 숲, 삼림, 타이가의 주민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에벤키는 에벤족이 북쪽으로 이주하고 에벤족이 언어와 문화적으로 원형통구스그룹과 분리된 이후 에벤키족이 자신의 선조를 부르던 용어인 예본에 접미사 -ki를 첨가하여 만들어졌으며 에벤은 에벤키에서 접미사 -ki를 없앤 순수한 에벤식 민족명으로 예본→에벤키→에벤의 관계가 성립됨이 밝혀졌다. 또 에벤키와 에벤의 의미와 관련하여 1744-45년 야코프 린데나우이는 에벤키의 의미가 '횡단하여', '가로질러'임을 규명했는데 에벤은 에벤키에서 접미사 -ki를 없앤 형식이므로 에벤키와 '횡단하여', '가

62) Болдырев, там же, ч. 1, с. 195.

로질리'라는 의미를 공유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 에벤키와 에벤효족에게는 씨족명과는 달리 광의의 거주 지역 안에서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그룹을 가리키는데 자명이 있었다. 에벤키족의 자명에는 비라리, 마네그리, 킬렌, 함니간, 솔론, 온그코리, 둔칸, 랍테르, 돈키, 오이벤키, 오로촌, 일레, 마타, 훈디살 등 무척 다양했다. 에벤효족의 자명에는 이빈, 에벤훨, 에분, 라무트, 오로치, 메네, 돈디트킬, 두드케, 일칸 등이 있었다. 본 연구는 언어를 통해 원형통구스, 에벤키족, 에벤효족의 기원과 발전 양상을 분석하려는 작은 시도였으며 이를 계기로 통구스제민족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후속 연구물들이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 참 고 문 헌

- V. Ju. 미할첸코 & G. D. 맥코널, 『러시아 연방의 절멸 위기 알타이 언어: 사회언어학적 백과사전』, 최문정 옮김, 태학사, 2013.
- 엄순천, 「에벤키 씨족명 접미사 분석」, 『외국학연구』 제31호, 2015.
- НІЕКІSCH, Carl, *Die Tungusen*, Buchdruckerei der Kaiserli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1879.
- ААН. ф.94, оп.1, д.3, л.333об.
- АБАЕВ, Н. В., "Идентичность Танну-Урянхая и Урянхайская проблема," *The Studies of Koguryo* 18, 2004.
- АЯНЦ. ф.5, оп.1, д.243, л.23.
- АЛЕКСЕЕВ, В. П., *История первобытного общества*, Высшая школа, 1990.
- БИЧУРИН, Н. Я., *Собрание сведений о народах, обитавших в Средней Азии в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 I-III*, Институт этнографии им. Миклухо-Маклая, 1950.
- БОЛДЫРЕВ, Б. В., *Эвен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1-2*, Филиал СО РАН ГЕО, 2000.
- ВАСИЛЕВИЧ, Г. М., *Древнейший этном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названия*

- эвенкийских родов.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4, 1946.
- _____, "Корытообразная нарта сымских эвенков," *Сбор. Музея антроп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АН СССР* 10, 1949.
- _____, "Типы оленеводства у тунгусоязычных народов," *VII Международный конгресс антропологических 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их наук*, Наука, 1964.
- _____, *Исторический фольклор эвенков. Сказания и предания*, Наука, 1966.
- _____, *Эвенки: Историко-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очерки XVIII-начала XX в.*, Наука, 1969.
- ВИКТОРОВА, Л., "К вопросу о расселении монгольских племен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 IV веке до н.э.-XII в. н.э.," *УЗЛУГ* 256(7), 1958.
- Всесоюзная перепись населения 1926г.*, Т. 7, М., 1928.
- ГЕОРГИ, И. Г., *Описание всех в Росси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 народов* 3, Типография Вейнбрехта и Шнора, 1777.
- ДОЛГИХ, Б. О., "Родовой племенной состав народов в Сибири в XVII в.," *Труды Института Этнографии АН СССР* 4, 1960.
- ЗАЛКИНД, Е. М., "Древние народы катийских хроник и эвенки: Хунну, Дунху, Сянь-би, Ши-вей(обзор теорий),"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1, 1937.
- КИТМАНОВ, Д. А., "Функциональные неврозы среди тунгусов," *Советский Север* 7(8), 1930.
- МИЛЛЕР, Г. Ф., *История Сибири*, Вост. лит., 2005.
- ОРЛОВ, А. С., "Амурские орочены," *ВРГО* 21(6-2), 1857.
- ПАЛЛАС, П. С., *Путешествие по разным провинциям Росс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мператорская Академия Наук, 1788.
- ПАТКАНОВ, С., *Опыт географии и статистики тунгусских племен Сибири* 1(1), Спб.: Изд-СПб., 1906.
- Полевые материалы В. А. Туголукова*, 1955, тетр.3, л.170; 1965, тетр.1 л.64.; 1969 г., т.1, л.27об.; 1973, л.49-51об., Архив Ин-та этнографии АН СССР.
- ПОПОВА, У. Г., *Эвены Магада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ука, 1981.
- Маак, Р., *Путешествие на Амур, совершенное по распоряжению Сибирского отдела РГО в 1855г. Р. Мааком*, Изд-во С.Ф.Соловьёв, 1859.
- СОКОЛОВА З. П. & ТУГОЛУКОВ В. А., "Старые и новые названия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оветская этнография* 1, Наука, 1983.

- СТЕПАНОВ, Н. Н., "Русские экспедиции на Охотском побережье в XVII в. и их материалы о тунгусских племенах," *УЗЛПШ* 48-3, 1939.
- Татарско-русский словарь*, Сост. К. С. Абдразаков и др, Сов. энциклопедия, 1966.
- ЦГАДА. ф.199, д.511, ч.2, N9, л.6; f.214, кп.980, l.62.
- ТУГОЛУКОВ, В. А., "Эвенки бассейна рек Турухан," *Социаль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и культура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Наука, 1974.
- _____, *Этнические корни тунгусов. Этногенез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Наука, 1980а.
- _____, "Тунгусы среди татар и хантов на Иртыше и Оби в XVI-XVII вв.," *III Всесоюзная тюрколог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е и история. Тезисы и докладов и сообщений*, 1980b.
- _____, *Этногенез и этническая история.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Эвенов*, Наука, 1997.
- ТУРОВ, М. Г., "Проблемы исторической прародины северных тунгусов и этногенеза эвенков," *Известия Иркут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1(2), 2013.
- ШАВКУНОВ, Э. В., *Государство Бохай и памятники его культуры в Приморье*, Наука, 1968.
- ШРЕНК, Л., *Об инородцах Амурского края* Т.1, Изд. АН, 1883.

❖ ABSTRACT

The Analysis of Etymology of Tungus's Ethnic Groups and the
Endonym: Centering on the Evenki and Even

Eom, Soon-Che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he analysis of the origin meaning of Tungus, Evenki, Even. This is related with a close examination of origin of the Tungus, Evenki, Even. Etymology of Tungus is realited with the ancient peoples Dongho of China, a etymology of Evenki is realited with the ancient peoples Ohwan of China. Even is made by omitting the suffix -ki in Evenki. In addition, in Evenki and Even have variety names for themselves. There are reflect the difference in a residential area and lifestyle. The Evenki's endonyms are birary, manegry, kilen, hamnigan, solon, ongkory, dunkan, ljamter, donki, ojvenki, orochon, ile, mata, hundysal. The Even's endonyms are yvyn, even, evun, lamut, oroch, mene, dondydkil, dudke.

Key Words

통구스, 에벤키, 에벤, 동호족, 오환족

Tungus, Evenki, Even, Dongho, Ohwan

논문접수일: 2015년 04월 18일

심사완료일: 2015년 06월 10일

게재확정일: 2015년 06월 17일